

“여름이다! 물놀이에 더위가 싹” 해남 물놀이장 속속 개장

해남공룡박물관·동해리 김치마을·고천암 생태공원 물놀이 명소 북적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해남의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해 피서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해남의 물놀이장은 청정자연에서 온 깨끗한 물과 탁트인 주변 경관, 주요 관광지 가까이 위치해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두륜산 맑은물 흘러내리는 동해리 물놀이장

농촌체험마을로 유명한 북평면 동해리의 물놀이 체험장이 지난 7월 8일 개장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해리 물놀이 체험장은 두륜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맑고 차가운 계곡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연간 1만여명이 찾은 여름 명소이다.

골목을 따라 이어진 낮은 돌담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계절별 농사체험과 생태체험 등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동해뜰 김치, 칼슘 목은지, 저염 장아찌 등을 생산,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동해 물놀이 체험장은 물놀이 시설 2개소를 비롯해 정자, 평상, 주차장, 샤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체험장의 이용료는 미취학 아동은 무료, 초등5,000원, 중학생부터는 7,000원이다. 평상입대료는 4만원, 파라솔은 선착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용문의 <http://kimchi.invil.org> ☎061-534-1743)

◆공룡도 보고, 물놀이도 즐기고! 해남공룡박물관

어린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 해남공룡박물관에 물놀이 체험장이 새로 생겼다.

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은 1,750㎡ 규모로, 물놀이장, 바다분수, 물놀이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과 함께 탈의실, 영유아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공룡박물관은 여름철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최고 인기 관광명소이지만 그동안 어린이들이 즐길거리가 부족해 매년 여름 간이용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해 왔다.

이번 물놀이 체험장 조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게 되어 공룡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같은 기간 주말마다 풍선마술, 샌드아트 마술 등 특별공연과 함께 공룡 XR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체험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해남공룡박물관은 8월까지 휴관없이 매일 개관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1시간씩 연장해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이용문의 <http://uhanggridinopia.haenam.go.kr> ☎061-530-5942)

◆고천암 새로운 명소, 신나는 바다분수

해남 고천암에 자리잡은 에코생태공원은 주말이면 5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있는 나들이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다분수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시에 운영된다.

생태 놀이터와 피크닉장, 연꽃습지, 갈대 탐방로, 철새 탐조대 등이 마련돼 자연속에서 마음껏 뒹굴 수 있도록 조성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에 16일부터 6주간 안전관리요원 10명 배치



장흥군은 1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장흥소방서의 협조로 실시된 이번 안전교육은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수칙,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인명구조 실습 훈련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구조장비 사용방법 등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요원 10명은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6주간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탐진강 일원, 장전재 계곡, 용뚝계곡, 봉덕계곡)에 배치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와 기상정보 파악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사업비 325억 원 확보...농촌지역 활성화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맞춘'

강진군이 1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진원 강진군수 등 ‘농촌협약’에 선정된 전국 20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군은 농촌협약의 장기발전계획으로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365생활권’ 실현, 강진만의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365 생활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만인



(灣人/萬人)의 행복, 365 강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촌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군정 완성도 높인다’

군정 정책 관련 전문가 13명 구성...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 개최

완도군에서는 지난 13일 군정 상황실에서 군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을 위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문화·관

광, 농·수산업, 4차 산업,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완도군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자문 회의에는 민선 8기 공약 중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주요 공약을 선정하여 보고하고, 자문 위원이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자문 위원들은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섬 비엔날레 개최 ▲기후변화 대응 신상품 개발 등 15개 공약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6기와 7기에 쌓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접목하여 공약 추진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상 또는 건축물대장에

진도군 “빨리 신청하세요”

등재된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진도군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